

# 돌아온 캡틴 안영규 “광주FC가 있어야 할 자리는 1부”

모든 선수들이 승격을 바라보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내 역할 수비 강화로 최소 실점 각오 부상 없이 30경기 이상 뛰겠다

고향으로 돌아온 광주FC의 안영규가 '주장'으로 1부 복귀에 앞장선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이정호 감독은 광주·성남에서 수석코치를 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안영규에게 올 시즌 주장을 맡겼다. 3년 만에 고향으로 복귀한 안영규는 2018년에 이어 다시 한번 주장으로 광주를 이끌게 됐다.

안영규는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 편안한 마음이다.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 다”며 “올해 바로 다시 1부로 올라가는 게 큰 목표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승격을 위해 ‘하나’를 외치며 주장 역할을 할 생각이다.

안영규는 “내가 잘해야 후배들이나 동료 선수들한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내가 잘하면서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선수가 승격을 바라보고,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다”고 말했다.

2018년 주장 때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3시즌을 보내면서 더 성숙해진 안영규다.

안영규는 “그때는 더 어렸기 때문에 뭔가 의욕적으로 ‘무조건 이겨야겠다’ 그런 느낌이었다. 지금은 경험도 쌓였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 나가서 선수뿐만 아니라 못 나가는 선수들까지 한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정호 감독의 기대 대로 사령탑의 의중을 잘 읽고 조율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안영규

안영규는 “감독님이 장난도 많이 치시는데 그런 부분은 (코치 때와) 변함이 없지만 저도 감독님으로 처음 겪는 한 해이기 때문에 더 알아가야 할 것 같다”며 “감독님이 장난 속에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그런 것을 선수들이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30명 넘게 선수들이 있는데 혼자 할 수 없다. 부주장 김중우, 이순민 등 저희 3명뿐 만이 아니라 팀 전체가 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나서서 서로를 도와야 한다. 선수들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장에 앞서 ‘수비수’ 역할도 막중하다. 지난 시즌 광주는 최다 실점 2위 팀으로 아쉽게 승격을 날린 경기가 많았다.

안영규는 “감독님이 수비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수비수이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주신 것 같다. 지난해 이기다가 비기는 경기, 역전패를 당한 경기들이 있었다. 이기고 있을 때는 그 경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선취 실점할 수 있지만 한 골 이상 실점을 안 하도록 하겠다. 그래야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 한 골 먹었다고 해서 무너지는 팀이 아닌 역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 최소 실점을 우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부상 없이 30경기 이상을 소화하는 게 안영규의 목표다.

안영규가 밖에서 본 광주는 결코 쉬운 팀이 아니었다. 안영규는 2월 19일 김포FC와의 개막전을 목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광주FC의 주장 안영규(왼쪽에서 두 번째)가 벌교스포츠클럽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표로 단단하게 팀을 만들어갈 생각이다.

안영규는 “광주를 약팀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막상 경기해보면 경기력이 좋았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역습을 하는 끈끈한 팀이었다. 까다롭게 느껴진다”며 “훈련하면서 우리 멤버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시즌이니 잘 맞춰 나간다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선수들이 아직 만족을 못 하고 있다.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개막전에 맞춰서 쏟아내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이다. 부상을 당하면 자신도 손해고 팀도 손해”며 “첫 시작이 중요하다. 내가 떠나면서 전용구장이 생겼는데 광주 원정 올 때 안 왔다. 전용구장에서 경

기를 한 번도 안 했다(웃음). 전용구장에서 데뷔전이기 때문에 김포와 개막전이 의미 있다. 개막전을 승리로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견제해야 하고, 이기고 싶은 팀은 스쿼드가 좋고 평가받는 안양, 대전, 전남과의 ‘엘로더비’도 광주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승점이 필요한 경기라고 예상했다.

안영규는 “3년 만에 돌아와서 기쁘고 팬들도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2부에서 시작하지만 올해 시즌이 끝났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1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팬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황희찬, EPL 올버햄프턴 원더러스로 완전 이적

구단, 2026년까지 계약 발표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어 행복”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26)이 임대로 뛰면서 성공적인 반시즌을 보낸 잉글랜드 프로축구 올버햄프턴 원더러스로 완전 이적했다.

올버햄프턴은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황희찬을 완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올버햄프턴과 황희찬의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다.

지난해 8월 독일 RB라이프치히에서 올버햄프턴으로 임대된 뒤 5개월 만의 완전 이적이다. 당시 올버햄프턴은 황희찬을 임대 영입하며 계약서에 차후 완전 영입을 가능케 하는 옵션을 달았다.

올버햄프턴은 이적료를 받지 않았으나, 1천 670만 유로(약 225억 8000만원)를 라이프치히에 지급한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황희찬은 올버햄프턴으로 임대 이적한 뒤 프리미어리그(EPL) 첫 6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뛰어난 득점력을 보였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왓퍼드와의 EPL 2라운드에서 후반 18분 교체 투입된 뒤 20분만에 데뷔골을 넣어 올버햄프턴의 2-0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금방 주전으로 도약한 황희찬은 7라운드 뉴캐슬전에서는 멀티골을 폭발했고, 9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도 골맛을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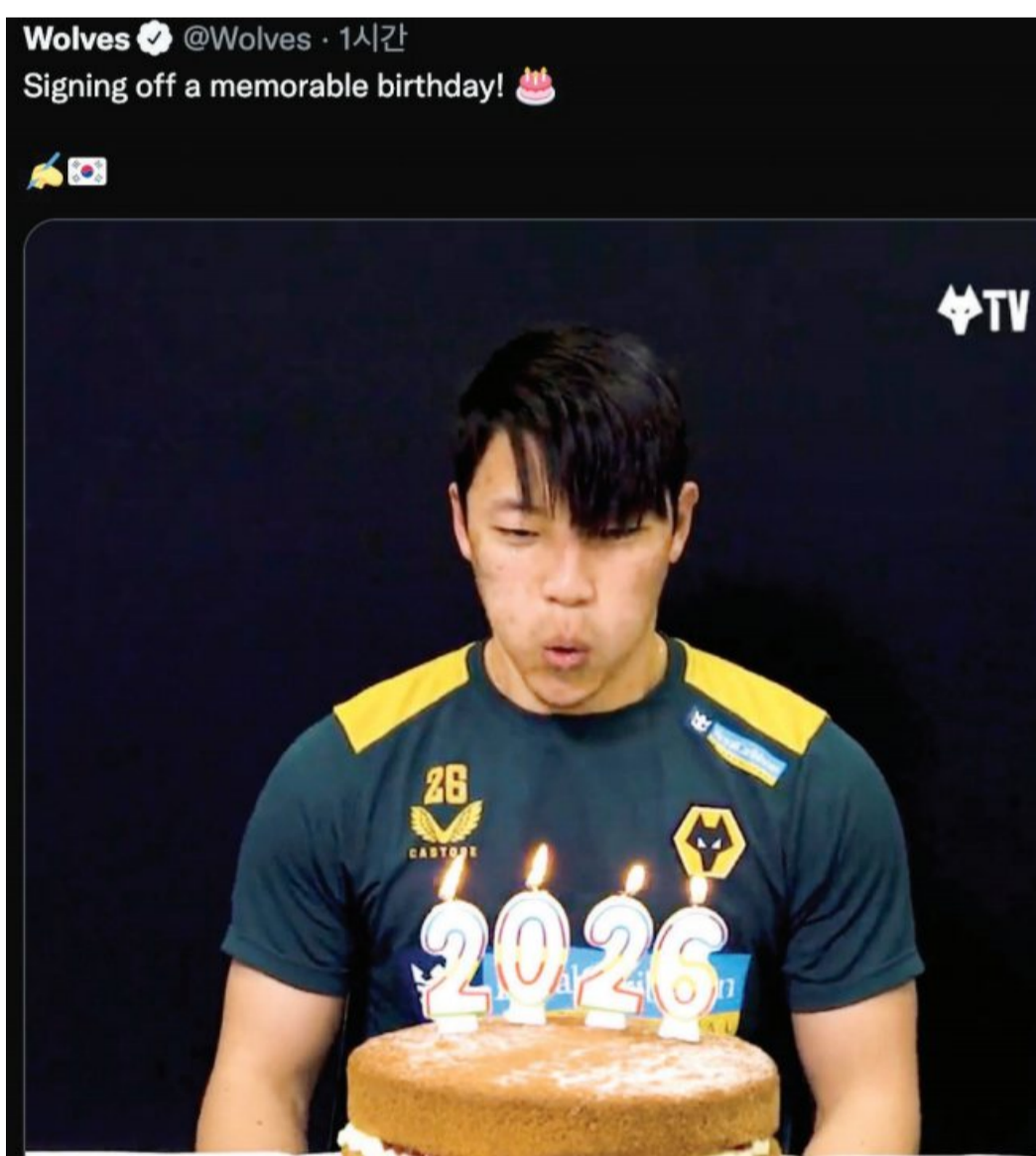
황희찬은 구단 자체 ‘9월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희찬은 지난달 중순 브라이턴전에서 허벅지를 다쳐 현재 전열에서 이탈해 있지만, 전반기 활약상은 올버햄프턴이 그의 영입을 ‘성공적’이라고 규정하기에 충분했다.

황희찬을 영입한 이유에 대한 구단의 설명도 다르지 않았다.

올버햄프턴 홈페이지는 황희찬의 시즌 초 득점 행진 등 팀에서 보여준 뛰어난 경기력은 물론 한국 대표팀에서의 활약상도 언급했다.

이어 스코트 셀러스 구단 기술이사가 “라이프치히에서 원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던 황희찬이 이곳에서 확실하게 기회를 잡았다. 그가 보여준 뛰어난



잉글랜드 프로축구 올버햄프턴이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희찬을 완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올버햄프턴은 1월 26일생인 황희찬의 생일과 2026년까지의 계약을 축하하며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다.

/연합뉴스

결단력과 집중력은 경기력과 골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왔다”고 호평했다.

올버햄프턴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황희찬의 완전 영입을 알리면서 “긴 여정을 함께함시다”라는 한글 문구와 함께 계약 만료 시점인 ‘2026년’을 강조하는 영상을 올렸다.

황희찬의 26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트윗도 함께 올렸다. 황희찬은 1996년 1월 26일생이다.

올버햄프턴은 이런 의미를 담아 완전 이적 발표

일도 26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황희찬은 완전 이적에 성공한 황희찬은 구단을 통해 “2026년까지 올버햄프턴에 남게 돼 매우 기쁘다. 정말 좋은 감독님,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는 게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가 처음 이 팀에 왔을 때부터 그들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줬고, 덕분에 나는 축구에만 집중하며 일을 잘 할 수 있었다.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에도 훈련 캠프 시계는 돌아간다

KIA 타이거즈와 광주FC

2022년 명예회복 구슬땀

설 연휴에도 그라운드 시계는 돌아간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KIA 타이거즈와 광주FC는 2022년을 ‘변화의 시즌’으로 삼았다.

지난해 KIA는 9위라는 성적을 내면서 3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고, 광주는 K리그1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2년 만에 K리그2로 강등됐다.

새 사령탑을 앞세워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두 팀은 연휴도 잊은 채 새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게 된다.

‘호랑이 군단’은 설날인 2월 1일 겨울잠을 깨내고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1군 선수단은 함평 헬린저스필드에서, 2군 선수단은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2022스프링캠프 첫 훈련을 소화한다. 연휴인 2일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등 ‘3일 훈련 1일 휴식’의 캠프가 시작된다.

비화동기간이었던 11월과 12월 챔피언스필드와 스포츠 센터 등에서 봄만들기에 주력했던 선수

단은 캠프를 통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창원에 이어 벌교에서 전지훈련 중인 광주도 경주로 장소를 옮겨 새해를 시작한다.

예정보다 이를 늦춰 31일까지 벌교에서 2차 동계훈련을 진행하는 광주는 ‘하룻밤의 휴식’을 맞는다.

31일 광주로 복귀해 숨 고른 선수단은 2월 1일 세 번째 동계훈련지인 경주로 먼 길을 떠난다.

그리고 2일부터 다시 훈련에 돌입하면서 베스트 11 경쟁을 이어간다. 2월 19일 김포FC와의 개막일이 발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만큼 연휴의 여유를 느낄 틈이 없다.

바쁜 훈련 일정 속에서도 프로필 촬영과 미디어 데이 일정 등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광주의 시계는 더 빠르게 돌아간다. 캠프 막바지에는 K리그1 팀과의 연습경기도 예정되면서 ‘베스트 11’을 향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올 시즌 각각 ‘포스트 시즌’과 ‘승격’을 목표로 내세운 KIA와 광주가 설날 연휴도 반납하고, 결실의 가을을 위해 달려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진천선수촌서 코로나 추가 확진...국가대표 조기 퇴촌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인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근무하는 대한체육회 직원 중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대표 선수들이 예정보다 일찍 퇴촌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선수촌 근무자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체육회는 선수촌 내 철저한 방역을 위해 훈련 중이던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퇴촌을 권고하고 종목 단체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진천선수촌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 29명과 13개 하계 종목 선수·지도자 약 300명이 훈련 중이다.

선수촌 권고를 따르면, 하계 종목 선수들은 예정보다 이를 먼저 선수촌을 나온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설 연휴를 맞아 29일 퇴촌할 참이었다고 체육회는 설명했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마땅한 훈련 장소를 찾지 못하는 동계 종목 선수들은 진천에 남는다.

30일 베이징으로 떠나는 쇼트트랙 대표팀 21명과 일본을 경유해 베이징으로 향하는 컬링 대표팀 8명은 진천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체육회는 설 연휴 기간 선수촌을 철저하게 통제해 방역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뒤 2월 7일 하계 종목 선수들의 재입촌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